

지역 소식통

고창군보건소,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고창군보건소가 만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고 난 뒤 몸속에 잠재돼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 부위에 생기나 신경이 있는 부위이면 얼굴 팔 다리 등 어디에서든 발생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생 단 1회만 맞으면 되고 50~7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설령 대상포진이 발병하더라도 통증이 경미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의 경우 발병 1년 이후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상수도 공급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수도사업 운영과 관리, 경영개선, 서비스 실태 등의 평가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유지 동기 부여를 위해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전국 11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지방공기업들을 대상으로 3개 지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평가단의 서면 평가와 현지 평가를 통해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출생 아동 첫 통장 개설 지원

정읍시, MG새마을금고와 협력...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정읍시가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생 축하!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부모 또는 아이 도장을 지참해 정읍새마을금고(본점 063-535-1341, 시가지점 063-535-1345, 수성점 063-531-6440)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많은 출생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통장 개설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정읍새마을금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주 이사장은 "정읍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축하금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 공헌 활동 분야를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부모를 상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211명의 출생 아기가 지원금을 받는 혜택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시장이 10일 오후 첫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시민 중심 따뜻한 행정 펼칠 것"

유진섭 정읍시장 첫 영상 간담회의 주제

유진섭 시장이 10일 오후 첫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올해도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만큼 시민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유 시장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 복지,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더욱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해 사전 정보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전략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향누리 상품권 발행·관리를 위한 노력과 가맹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안심을 연장 확대 운

영과 중소기업 운영지원 등에 대해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유 시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홍보도 거듭 당부했다. 유 시장은 2022년 출생축하금 지원과 영아 수당 지원사업,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달라지는 정책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

고창 동리국악당서 열어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가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방역패스를 적용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했다.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김용선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전봉준장군 후손 전성준남, 기념사업회 및 녹두교실 회원 등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이동순 시인의 전봉준장군을 기리는 시 '녹두'가 낭송됐다. 분향사로 현수, 봉정, 헌화와 전봉준장군이 일본군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기 전 마셨다고 전해지는 술인 축력고(대나무 잔액에 술임, 창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증류주)를 올렸다.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이사장 진윤식)가 10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제166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진윤식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인 전봉준 장군의 업적을 되새기고 근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만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부안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다. 또한 부안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귀촌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귀농인은 가구당 최대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 및 최대 75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연 2%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하는 대

출지원사업이다. 군은 이번 창업·주택 지원사업 외에도 귀농·귀촌 눈높이에 맞는 현장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영농기초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이사비 및 귀농정착자금 등 초기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시설하우스 지원 고소득 농업기반 구축

고창군이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도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는 식재 시기를 앞당기고 수확 시기를 연장해 일 반 노지재배보다 생산량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 병해충 피해를 낮춰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이는 등 농작업이 수월해져 고추나 특화 작물 재배 농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이 들어간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여름철 혹독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을

대비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 광역조직에 출하예정을 맺은 농업경영체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원예특작팀(063-560-2532)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군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첨단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